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ce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가정학과
박사과정 김 선 희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김 경 연

Dept. of Home Economics, Pusan National University

Doctrial Course : Sun-Hee Kim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Kyong-Yeon Kim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요약 및 논의 |
| III. 연구 방법 및 연구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Behavior Problem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ce'. The 518 subjects were selected from 5th and 6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s and first and second grades of middle schools in Pusan. Statistic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χ^2 , cramer's V, factor analysis, multi-regression, Pearson's r, Cronbach's α .

The major finding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80 items of the 159 item scale were acceptable through item discriminant method. The discriminant coefficients of the items(Cramer's V) ranged from .48 to .81.
- 2) 6 factors(shyness, aggression, hyperactivity, withdrawal, anxious, immature) extracted from factor analysis. Multi-regression analysis conducted to reduce the length of scale have drawn 42 items for 'the Behavior Problem Scale Children and Adolescence'.
- 3) Reliability coefficients(Cronbach's α) of this scale was .9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behavior problem)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적·정서적 부적응의 결과이다. 행동문제는 사회적 규범에 벗어난 행동이므로 주위사람으로부터 처벌·회피와 같은 부정적 반응을 이끈다(Kauffman, 1981, 14-22). 일반적으로 행동문제의 주평가자는 부모로서 이들은 아동과 가장 근접한 환경에 있어 비교적 타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홍강의, 홍경자, 1983). 그러나 대다수 부모평가용 행동문제 척도(Achenbach, 1991; Achenbach & Edelbrock, 1979, 1983; Connors, 1970; Rutter, 1981)는 외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척도의 타당화 과정이 요구된다. 몇몇 연구들이(한미현, 유안진, 1995; 홍강의, 홍경자, 1983; 홍경자, 1985)이 타당성있고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행동문제 척도들은 주로 임상집단을 판별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일반아동의 행동문제를 평가하기에 곤란하다는 점이다. 이들 척도 문항에는 자살시도, 음식이 아닌 것을 먹음, 이상한 소리를 들음 등 정신병리적인 성향이 강한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일반아동의 행동문제를 평가할 때 이러한 도구를 사용할 경우 문항변별도가 낮은 문항들로 인해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일반아동의 행동문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실제적인 행동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러 문화비교연구(Weisz et al., 1988; Weisz, Suwanlert et al., 1987)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동의 행동문제를 평가하는 성인의 판단에 그 사회의 문화적 규범이 반영됨을 알 수 있다. 특정 사회에서 문제시되는 행동이 다른 사회에서는 문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다수의 서구사회에서 아동

의 성관련 문제는 행동문제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는 반면 성관련 문제를 억압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한미현, 유안진, 1995).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경험적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개발한 척도를 그대로 번안 혹은 일부 수정사용(김리은, 정옥분, 1996; 심미경, 1995; 오경자, 이혜련, 1990; 한미현, 1996; 홍강의, 홍경자, 1983; 황옥경, 1990; 황혜정, 1994)하고 있어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성인들이 인식하는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동문제 평가자인 부모와 교사로부터 직접 수집한 정보들이 척도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척도들은 행동문제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함께 측정하기보다는 행동문제의 발생빈도만을 측정하거나(오경자, 이혜련, 1990), 해당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김영숙, 1988; 한미현, 1996; 김리은, 정옥분, 1996; 황옥경, 1988)하고 있다. 행동문제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행동문제가 얼마나 빈번히 발생하는가 하는 발생빈도, 얼마나 심한가하는 강도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Davison & Neale, 1994, 6-9). 예를 들어, 아동의 수줍음행동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수줍음이 나타나는 상황이 너무 많거나 너무 심할 때, 그 행동은 문제시된다.

종합하여 행동문제의 객관적인 평가도구 개발은 행동문제의 발현양상과 빈도 파악, 임상적 평가에 앞선 예비판별, 후속연구의 효율적인 수행 등의 이유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행동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행동문제를 파악하되, 행동문제의 평가자인 성인들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행동문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이 반영되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행동문제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행동문제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한국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를 개발하는데 있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의 양호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1. 행동문제의 정의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대해 학자들이 합의한 정의를 찾긴 힘들다. 행동문제는 사회적 맥락 내에서 정의내려지며 문화적 규범에 따라 규정된다(Kauffman, 1981). 자해행위와 같은 정신병리적 특성의 행동은 모든 문화권에서 행동문제로 간주되는 반면 학업 수행에 관련된 읽기 능력과 주의력 결핍은 발생빈도와 심각성에 따라 보편적인 행동으로 간주되거나 행동문제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렇듯 행동문제에 대한 불명확한 평가기준, 행동문제를 평가하는 전문가관과 전문가의 다양한 견해 등은 행동문제를 정의내리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행동문제를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행동문제를 정의내리는데 있어 환경간의 상호작용과정에 초점을 둔 성영혜(1992)는 행동문제를 아동과 가정, 학교, 이웃 등으로 구성된 독특한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장애가 있어 발생하는 것으로, 심리 및 사회적 원인으로 형성된 복합적인 문제라고 정의내렸다. 또한 한미현(1996)은 행동문제를 일상생활에서 아동들이 보이는 행동이 발생빈도와 표출정도에 있어서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 벗어난 행동이며 이는 아동이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생활해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요인들로 인해 유

발된 행동적·심리적 부적응이라고 정의내렸다.

한편,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행동문제를 정의내린 양혜영(1997)에 의하면 행동문제란 아동들이 보이는 정상적인 행동이 과장되거나 왜곡, 실패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문제의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전 단계에서 부적응을 보였던 개인은 다음 단계에서도 부적응적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행동문제의 구체적인 특성들을 제시함으로써 행동문제를 정의내리고자 한 Bower (Kauffman, 1981에서 재인용)는 행동문제를 학교에서의 학업 곤란, 불만족스런 대인관계, 부적절한 행동과 감정, 지속적인 불행감과 우울감, 학교나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된 신체적 증상 혹은 공포 등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상의 정의들을 종합하면 행동문제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적·정서적 부적응의 결과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사회·문화적 수용정도가 낮고, 발생빈도가 높으며 표출정도가 심하고, 아동발달에 장기적인 부적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특성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2. 행동문제 척도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평가하는데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는 Achenbach (1979, 1991, 1997)의 CBCL(Child Behavior Checklist)과 Rutter (1981)의 CBQ(Child Behavior Questionnaires)이다. CBCL(1991 profile)은 부모용 평정척도로 Achenbach가 1960년대 부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의 보완, 수정작업을 거쳐 대상연령과 정보원천(부모, 교사, 아동자신)을 다양화한 것이다. CBCL을 기초로 구성된 TRF(Teacher's Report Form)은 교사용 평정척도이고 YSR(Youth Self Report)은 아동용 평정척도이다. CBCL, TRF, YSR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었으며, 4-18세 아동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된 8개의 중후군은 위축행동, 신체증상, 불안/우울, 주의문제, 사회성문제, 사고문제, 비행행동, 공격행동이다. CBCL이 여러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

고 있는 이유는 체계적인 척도 타당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며 정상집단을 대상으로 행동문제자를 예비판별 해내는데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한편 영국에서 개발된 CBQ는 부모용 31문항, 교사용 26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CBCL에 비해 시간의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연구자들(심미경, 1995; 황혜정, 1994)이 사용하고 있다. CBQ는 반사회적 요인, 신경증적 요인, 습관적 요인, 언어적 요인 등으로 구성된다(황혜정, 1994).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척도들을 살펴본 결과 CBCL이나 CBQ와 같은 단일 척도의 모든 문항을 사용하거나(김리은, 정옥분, 1996; 황옥경, 1990; 황혜정, 1994),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행동문제 척도에서 몇몇 행동문제를 한정적으로 선별하여 사용(김선애, 김준호, 1995; 이경주, 신효식, 1998; 정미자, 이숙, 1996; 한미현, 1996; Dishion, 1990; Dodge, Pettit, Bates, 1994)하고 있다. 행동문제를 크게 외적문제(externalizing problem)와 내적문제(internalizing problem)로 나누었을 때(오경자, 이혜련, 1990; Achenbach, 1991), 외적문제로는 공격성, 비행, 과잉행동 내적문제로는 불안,

우울, 사회적 위축이 주로 사용되었다.

최근 들어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후속연구의 효율성을 돕기 위해서 객관적인 평가척도 개발이 중요하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바대로 기존의 행동문제 척도들은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안·수정해서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규범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임상집단 판별을 위해 개발되어 일반아동에게 적용하기 곤란하다. 또한 척도의 응답방식에서 행동문제의 발생빈도만을 측정하거나 해당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행동문제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행동문제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Ⅲ.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247명과 남·여중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271명으로 총 518명이다. 본 연구에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성격

변 수	구 분	빈도(%)	인원 (결측인원)	변 수	구 분	빈도(%)	인원 (결측인원)
학 년	초등학교 5학년	124(23.9%)	518(0)	아버지의 직업	전문,관리직	83(16.7%)	496(22)
	6학년	123(23.7%)			사무직	100(20.2%)	
	중학교 1학년	133(25.7%)			생산,서비스직	293(59.1%)	
	2학년	138(26.6%)			무직	20(4.0%)	
성 별	남자	263(50.8%)	518(0)	아버지의 학력	중졸이하	58(11.7%)	495(23)
	여자	255(49.2%)			고졸	223(45.1%)	
연 령			515(3)	월 평균소득	전문대졸	51(10.3%)	509(9)
	10세	34(6.6%)			대졸,대학원졸	163(32.9%)	
	11세	105(20.4%)			100만원이하	116(22.8%)	
	12세	179(34.7%)			101-200만원	254(49.9%)	
	13세	119(23.1%)			201-300만원	90(27.7%)	
	14세	75(14.6%)			300만원 이상	49(9.6%)	
15세	15(3.6%)						

서 행동문제 평가자로 부모를 선정한 이유는 이들이 아동과 가장 근접한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 아동을 가까이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점(한미현, 유안진, 1995)과 임상평가와 부모평가가 가장 높은 일치율을 보이고 있는 점(홍강의, 송혜양, 김중술, 홍경자, 박성수, 1988; 홍강의, 홍경자, 1983)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후기와 청년기에 해당하는 아동을 선정한 이유는 두 집단의 행동문제를 동일 척도로써 측정함으로써 두 집단간 행동문제를 비교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표집방법은 부산시의 3개 구에 위치한 1개 초등학교와 남부 중학교 각 1개교를 선정하여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각각 4학급씩, 중학교 1, 2학년에서 각각 4학급씩 총 16학급을 유의표집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표집된 대상의 일반적 성격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척도구성

1) 문항수집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을 수집하기 위해 다음의 두가지 과정을 거쳤다.

첫째,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수집하였다. Achenbach(1991)의 CBCL(Child Behavior Checklist)에서 89문항, Rutter(1970)의 CBQ(Child Behavior Questionnaires)에서 31문항, Cheek와 Buss(1981)의 Shyness Scale에서 13문항, La Greca, Dandes, Wick, Shaw, & Stone(1988)의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에서 10문항, Asher, Hymel, & Renshaw(1984)의 Children's Loneliness Scale에서 16문항, 홍강의와 홍경자(1983)가 제작한 척도에서 60문항, 김명숙(1994)이 제작한 69문항을 수집하였다. 각 척도의 문항들을 비교 검토하여 동일하게 기술된 문항과 유사한 문항은 가장 보편적이며 구체적으로 기술된 문항 1개를 선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총 125문항을 수집하였다.

둘째, 기존 척도들에 포함되지 않은 문항을 수집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자 부모용, 교사용, 아동용으로 작성하였으며, 부모에게는 '자녀의 일상행동 중 문

제라고 생각하는 행동 특성은 무엇입니까?', '꼭 고쳤으면 하는 행동 특성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작성하여 자유기술식으로 응답토록 하였다. 또한 응답의 신중성을 확보하고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세부적인 상황(잠자리에서, 식사시간에, 혼자 있을 때, 형제들과 있을 때)을 제시하여 각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특성을 기술토록 하였다. 교사용 질문지는 아동의 학교생활에 부적응적인 행동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행동문제라고 생각하는 특성을 기술케 했으며, 부모용 질문지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상황(조·종례시간에, 수업시간에, 쉬는 시간에, 혼자 있을 때, 친구들과 있을 때)을 제시하여 응답토록 하였다. 아동용 질문지는 자신이 지각한 행동문제 특성과 자신들이 지각하는 친구들의 행동문제 특성을 기술케 하였다. 부모, 교사, 아동에게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정보원을 다양화한 이유는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 척도 문항에 포함되지 않은 34문항을 수집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수집된 문항은 총159문항이었다.

2) 응답방식 결정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행동문제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각각 측정하기 위해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하나는 부모가 경험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발생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에서 '항상 경험한다'의 4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또 하나는 부모가 지각하는 행동문제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혀 심하지 않다'에서 '아주 많이 심하다'의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택한 이유는 행동문제의 빈도와 강도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행동문제의 정도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는 행동문제의 빈도에 행동문제 강도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그리하여 각 문항의 점수범위는 1-16점이다.

3. 조사절차

본조사에 앞서 문항수집을 위한 예비조사로 1998년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초등학교 6학년 2학

급과 남자중학교 3학년 1학급, 여자중학교 1학년 1학급, 총 147명의 학생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용과 아동용 개방형 질문지를 배부·회수하였으며, 해당 학교 교사 22명을 대상으로 교사용 질문지를 배부·회수하였다. 본조사는 1998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564부 중에서 무응답 문항이 많은 경우,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518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7.52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척도의 문항양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χ^2 검증을 한 후, Cramer's V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보다 적은 수의 타당성 있는 문항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문항양호도

총 159문항의 문항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각 문항의 반응분포를 분석하되, 본 척도가 행동문제 빈도와 강도의 두 영역으로 구성된 응답형식임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각각의 영역에서 1-4항목 중에 한 항목에 집중응답(80% 이상)을 보인 문항과 1-4항목 중에 응답빈도가 전혀 없는 항목이 있는 문항을 제외하여 모두 72문항이 제외되었다. 둘째, 전체문항과 각 문항간 상관계수를 구하여 .40이하인 7문항을 제외시켰으며, 셋째, 제외된 79문항을 뺀 나머지 80문항의 전체 응답분포를 토대로 상·하위 25%를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눈 뒤 각 문항별로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하

였고 Cramer's V계수를 구해 문항양호도를 판별하였다. χ^2 검증결과 80문항 모두 유의도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했으며, Cramer's V계수 또한 .48-.81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χ^2 , Cramer's V계수는 <표 2>와 같다.

2. 타당도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양호도가 확보된 80문항에 대해 두 차례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을 하였고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수 4개-9개까지 변화시켜가면서 분석하였다. scree test와 누적 분산율을 검토한 결과 6개 요인으로 지정했을 때 가장 적합한 문항구성을 이루었다. 요인 분석결과 요인부하치 .40이하인 문항 12문항(33, 69, 77, 78, 80, 82, 86, 91, 118, 125, 126, 154번 문항), 요인부하치 .40이상인 문항 68문항(8, 9, 13, 51, 72, 75, 92, 108, 144번 문항)을 제외시켰다.

두 번째 요인분석은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의 정교화를 위해 1차 요인분석에서 선정된 59문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차 요인분석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 요인부하치 .40이상인 문항 24문항(53, 81, 157번 문항)을 제외하였고, 나머지 35문항만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그 요인구조는 <표 3>과 같다.

첫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28.58%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고 사회적 상황에 적절히 참여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어색해 한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수줍음행동'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9.08%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언어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고함을 지른다', '말다툼을 한다', '말썽을 부린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공격성행동'으로 명명하였다.

〈표 2〉 문항양호도 분석결과

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문항- 척도간 상관계수	χ^2	Cramer's V	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문항- 척도간 상관계수	χ^2	Cramer's V
1(1)	2.65	1.89	.48	74.69***	.54	41(80)	3.28	3.36	.60	147.14***	.76
2(2)	2.43	1.94	.51	81.80***	.57	42(81)	2.40	2.22	.60	128.99***	.71
3(5)	3.38	2.69	.52	116.34***	.67	43(82)	2.13	2.29	.54	99.01***	.62
4(6)	2.60	2.56	.47	80.89***	.56	44(85)	2.79	2.89	.46	81.41***	.56
5(8)	2.63	2.45	.44	73.48***	.54	45(86)	2.27	2.19	.47	87.89***	.59
6(9)	2.81	2.59	.54	97.27***	.62	46(88)	3.03	3.08	.50	85.14***	.58
7(10)	2.77	2.70	.47	73.95***	.54	47(90)	2.31	2.16	.53	97.61***	.62
8(11)	1.86	1.81	.48	91.75***	.60	48(91)	2.51	2.62	.60	104.28***	.64
9(13)	2.59	2.63	.46	66.13***	.51	49(92)	2.84	2.81	.65	143.29***	.75
10(17)	2.04	1.86	.45	69.75***	.52	50(93)	3.20	3.17	.64	136.38***	.73
11(18)	4.14	3.37	.65	138.81***	.74	51(101)	2.86	2.94	.56	96.22***	.61
12(19)	3.12	2.63	.53	108.94***	.65	52(102)	2.27	2.17	.57	93.19***	.60
13(23)	3.21	2.79	.63	132.15***	.72	53(103)	2.19	2.23	.50	93.42***	.60
14(25)	2.91	2.87	.56	113.86***	.67	54(106)	2.39	2.57	.54	72.59***	.53
15(27)	3.44	2.79	.52	114.73***	.67	55(108)	2.65	2.50	.49	90.55***	.60
16(29)	3.16	2.80	.64	146.85***	.76	56(112)	2.35	2.33	.49	86.90***	.58
17(31)	3.11	3.07	.51	92.73***	.60	57(115)	2.55	2.67	.46	66.24***	.51
18(33)	2.87	2.65	.52	110.78***	.66	58(117)	2.56	2.31	.55	108.41***	.65
19(38)	2.55	2.26	.41	82.55***	.57	59(118)	2.49	2.21	.56	117.72***	.68
20(47)	4.04	3.61	.65	152.05***	.77	60(123)	2.01	1.95	.41	60.49***	.49
21(48)	4.08	3.66	.67	169.13***	.81	61(124)	2.71	2.85	.55	94.90***	.61
22(49)	3.71	3.60	.68	158.83***	.79	62(125)	2.48	2.58	.43	86.85***	.58
23(50)	2.12	1.93	.44	79.10***	.56	63(126)	2.82	3.01	.52	76.95***	.55
24(51)	3.74	3.24	.69	152.45***	.77	64(128)	3.10	2.97	.58	108.89***	.65
25(52)	3.97	3.65	.59	141.56***	.74	65(129)	2.31	2.20	.42	65.94***	.51
26(53)	2.23	1.85	.49	97.11***	.62	66(136)	2.80	3.01	.57	108.05***	.65
27(54)	2.00	2.02	.50	82.86***	.57	67(142)	2.31	2.85	.45	62.27***	.51
28(58)	2.12	2.05	.47	104.61***	.64	68(144)	2.23	2.13	.52	88.59***	.59
29(59)	2.07	2.20	.43	73.35***	.54	69(145)	2.02	2.07	.40	60.05***	.48
30(62)	3.25	3.06	.65	168.07***	.81	70(146)	2.41	2.25	.51	80.68***	.56
31(63)	2.09	2.14	.43	61.95***	.49	71(148)	2.32	2.05	.50	71.52***	.53
32(68)	2.35	2.63	.49	71.26***	.53	72(149)	2.28	2.09	.55	95.10***	.61
33(69)	2.24	2.09	.43	94.90***	.61	73(150)	2.31	2.13	.60	104.33***	.64
34(71)	2.36	2.48	.48	90.68***	.60	74(151)	2.47	2.55	.51	81.90***	.57
35(72)	2.52	2.19	.63	142.45***	.75	75(153)	2.77	2.75	.52	97.36***	.62
36(74)	2.06	1.80	.49	91.20***	.60	76(154)	2.36	2.44	.62	130.70***	.72
37(75)	2.50	2.44	.53	105.84***	.64	77(155)	2.26	2.14	.61	101.23***	.63
38(76)	2.07	1.65	.54	99.00***	.62	78(156)	2.32	2.11	.49	85.54***	.58
39(77)	2.49	2.29	.56	121.53***	.69	79(157)	2.33	2.38	.48	77.64***	.55
40(78)	1.96	1.78	.53	89.39***	.59	80(159)	2.04	2.35	.56	81.61***	.57

* 괄호안 번호는 설문지 번호임

*** P < .001

〈표 3〉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의 요인 행렬표

요인명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h ²
수줍음 행동	146	.77						.62
	128	.75						.67
	136	.75						.68
	153	.75						.66
	149	.74						.62
	150	.70						.63
	124	.70						.62
	101	.68						.68
	156	.67						.56
	151	.67						.56
	145	.64						.51
	155	.64						.55
	129	.57						.43
	148	.55						.43
	106	.47						.36
159	.46						.44	
공격성 행동	25		.74					.59
	18		.72					.64
	19		.70					.58
	10		.67					.54
	23		.66					.56
	5		.64					.46
	31		.62					.43
	2		.59					.44
	29		.57					.53
	76		.55					.42
	74		.53					.42
	1		.52					.34
	38		.50					.39
	63		.49					.34
27		.48					.42	
11		.47					.26	
과잉 행동	49			.73				.75
	48			.73				.71
	47			.70				.67
	62			.65				.64
	52			.60				.54
	6			.51				.36
17			.44				.38	
위축 행동	54				.63			.58
	90				.60			.52
	85				.56			.51
	50				.52			.39
	93				.51			.53
103				.49			.49	
불안 행동	112					.66		.58
	115					.56		.42
	123					.55		.45
	68					.51		.39
	142					.50		.45
	71					.50		.39
88					.45		.43	
미성숙 행동	58						.62	.52
	59						.61	.48
	102						.60	.66
	117						.52	.52
고유값 설명변량	16.86 28.58	5.36 9.08	2.61 4.42	2.05 3.48	1.75 2.97	1.64 2.78		
총설명변량	51.30							

세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4.42%를 설명하고 있는데 주의집중을 해야 할 상황에서 활동량이 보통수준 이상인 행동으로 '산만하게 행동한다',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과잉행동'으로 명명하였다.

네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3.48%를 설명하고 있는데 주변 자극에 민감하지 못하고 반응이 느리거나 사회적으로 움추러드는 행동으로 '행동이 서투르고 어색하다', '동작이 느리다', '자주 공상에 빠진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위축행동'으로 명명하였다.

다섯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2.97%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지나치게 두려워 하거나 염려하는 행동으로 '걱정을 많이 한다', '어떤 것에 집착하여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불안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여섯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2.78%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신의 나이보다 어리게 행동하고 성인들에게 의존하려는 행동으로 '생떼를 쓴다', '징징대거나 칭얼거린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미성숙행동'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보다 적은 수의 타당한 문항을 추출하기 위해 하위요인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의 개별문항 점수를 합하여 종속변수로 삼고, 각 개별문항을 독립변수로 삼아 개별문항을 하나씩 투입하는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별문항이 추가함에 따라 증가된 설명력이 1%이상인 문항만을 선택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요인별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가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요인1(수줍음행동)과 요인2(공격성행동)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각 요인별 개별문항들 모두 설명력 증가분이 1%이상으로 전체분산의 100%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1(수줍음행동)은 총 16문항 중 7문항만이 설명력 증가분이 1% 이상으로 이 7개 문항이 전체분산의 95%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2(공격성행동)는 총 16문항 중 11문항이 설명력 증가분이 1%이상으로 이 11문항이 전체분산의 98%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42개 문항이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측정하는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표 4〉 요인별 단계별 회귀분석

요인명	문항	문항이 추가된 후의 R ²	요인명	문항	문항이 추가된 후의 R ²	요인명	문항	문항이 추가된 후의 R ²	요인명	문항	문항이 추가된 후의 R ²
수줍음 행동	146	.58	공격성 행동	25	.58	과잉 행동	49	.75	불안 행동	112	.50
	128	.76		18	.80		48	.86		115	.62
	136	.87		19	.84		47	.91		123	.68
	153	.92		10	.86		62	.94		68	.82
	149	.93		23	.89		52	.97		142	.89
	150	.94		5	.91		6	.99		71	.94
	124	.95		31	.93		17	1.00		88	1.00
	101*	.95		2	.94	위축 행동	54	.46	미성숙 행동	58	.57
	156*	.96		29	.96		90	.73		59	.72
	151*	.97		76	.97		85	.82		102	.91
	145*	.97		74	.98		50	.89		117	1.00
	155*	.98		1*	.98		93	.94			
	129*	.98		38*	.98		103	1.00			
	148*	.99		63*	.99						
	106*	.99		27*	.99						
	159*	1.00		11*	1.00						

* 제외된 문항

3. 신뢰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alpha = .94$ 로 나타났고 각 요인별 α 계수는 .75 - .9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5〉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의 문항수 및 신뢰도 계수

행동문제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s α
수줍음행동	7	.90
공격성행동	11	.89
과잉행동	7	.87
위축행동	6	.79
불안행동	7	.75
미성숙행동	4	.75
전 체	42	.94

I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행동문제 척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아동을 대

상으로 행동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행동문제의 평가자인 성인들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규범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척도의 응답방식과 달리 행동문제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측정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시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247명과 남·여중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271명, 총 51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의 문항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문항의 반응분포를 분석하고 전체문항과 각 문항간 상관관계를 구하였으며, 전체 응답분포를 토대로 상·하위 25%인 두 집단간에 χ^2 검증을 하고 Cramer's V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양호도가 확보된 80문항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을 하였고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부하치 .40이하인 문항 12문항, 요인부하치 .40이상이면서 다른 요인에 동시에 적재된 12문항을 제외한 56문항이 전체 변량의 51.3%를 설명했다. 이 6개 요인을 각각 수줍음행동, 공격성행동, 과잉행동, 위축행동, 불안행동, 미성숙행동으로

명명하였다. 행동문제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김선애, 김준호, 1995; 이경주, 신효식, 1998; 정미자, 이숙, 1996; 한미현, 1996)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유형은 공격성, 비행, 과잉행동, 불안, 우울, 사회적 위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과 우울행동이 제외되고 수줍음행동이 포함되었으며, 수줍음행동이 가장 큰 변량을 갖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수줍음행동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소극성을 의미하는 사회적 위축행동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정승원, 도현심, 1997). 한편 본 척도에서 위축행동이라고 명명한 요인은 '행동이 서투르고 어색하다', '동작이 느리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사회적 측면이라기 보다 신체적 측면의 위축행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행과 우울행동이 제외된 이유는 본 척도가 부모평정용어이기에 기인한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학교상황에서 혹은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자녀의 비행행동을 관찰할 기회가 희박하며 우울행동 역시 주변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로 외현적인 문제라기 보다 개인 내부의 심리적인 문제이므로 부모가 평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한편 보다 적은 수의 타당한 문항을 추출하기 위해 하위요인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14문항이 제외한 42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의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alpha = .94$ 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 α 계수도 .75 - .9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아동 및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본 척도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우선 연구대상의 표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 유의표집에 의한 일반화의 문제, 다양화하지 못한 연구대상의 연령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의 평가자를 부모로 제한했다는 점이다. 본 척도는 부모평정용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 뿐 아니라 교사, 또래, 아동자신 등을 동시에 평가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행동문제 유형을 규명하고자 했으며, 행동문제의 주평가자인 부모와 교사로 부터 수집된 정보를 통해 척도 문항을 제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규범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관한 후속연구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명숙(1994).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리은 · 정옥분(1996).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부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5), 265-280.
- 김선애 · 김준호(1995). 부모의 통제유형과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이동학회지* 16(2), 49-63.
- 김영숙(1988).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영혜(1992).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심미경(1995). EBD(Emotional and Behaviour Difficulties)와 가정 및 교실 내의 심리사회적 기능간의 관계 연구. *인간발달연구* 2(1), 145-164.
- 양혜영(1997). 발달정신병리란 무엇인가?.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0(1), 113-122.
- 오경자 · 이혜련(1990). 아동 청소년 문제행동 평가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29(2), 452-462.
- 이경주 · 신효식(1998). 청소년 자녀가 경험하는 부모의 학대유형과 부적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6(8), 39-49.
- 정미자 · 이숙(1996). 아동의 또래 수용도와 관련변인간의 인과도형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241-252.
- 정승원 · 도현심(1997). 부모의 사회성 및 양육행동과

- 아동의 수줍음. *아동학회지* 18(2), 149-161.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미현·유안진(1995).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 홍경자(1985).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양상 도형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강의·송혜양·김중술·홍경자·박성수(1988). 아동행동목록(CBCL)에 의한 국민학생의 행동문제 조사 -아동의 행동문제 연구(III)-. *신경정신의학* 27(2), 346-359.
- 홍강의·홍경자(1983). 부모설문에 의한 아동의 행동문제 분석: 예비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2(3), 366-374.
- 황옥경(1990). 부모와 교사가 지각한 배척·소외 아동의 행동상의 문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1(1), 72-86.
- 황혜정(1994). 가족구조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 연구. *아동학회지* 15(2), 195-211.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Dept. of Psychiatry, Univ. of Vermont.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1979). The child behavior profile: II. Boy aged 12-16 and Girls Aged 6-11 and 12-16.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223-233.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Dept. of Psychiatry, Univ. of Vermont.
- Achenbach, T. M. & McConaughy, S. H.(1997). *Empirically based assess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practical applications*(2nd ed.). U.S: SAGE Publications.
- Asher, S. R., Hymel, S., & Renshaw, P. D.(1984).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456-1464.
- Cheek, J. M. & Buss, A. H.(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30-339.
- Connors, C. K.(1970). Symptom patterns in hyperkinetic, neurotic and norma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1, 667-682.
- Davison G. C. & Neale, J. M.(1994). *Abnormal psychology*(6ed). N.Y: John Wiley & Sons. Inc. 6-9.
- Dishion, T. J.(1990). The family ecology of boys' peer relation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874-892.
-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1994). Socialization medi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conduct problems. *Child Development* 65, 649-665.
- Kauffman, J. M.(1981).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behavior disorders*(2nd ed). Columbus: A Bell & Howell Company, 14-22.
- La Greca, A. M., Dandes, S. K., Wick, P., Shaw, K., & Stone, W. L.(1988). Development of the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reliability and concurrent validity. *J.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7, 84-91.
- Rutter, M.(1981). *Parental and teacher questionnaire*. London: Longman.
- Weisz, J. R., Suwanlert, S., Chaiyasit, W., & Walter, B. R.(1987). Over- and undercontrolled referral problems among Thai and American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wat and wai of cultural differences.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719-726.
- Weisz, J. R., Suwanlert, S., Chaiyasit, W., Weiss, B. W., Walter, B. R., & Andeson, W. W.(1988). Thai and American perspectives on over- and undercontrolled child behavior problem: exploring the threshold model among parents, teachers, and psychologists.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4), 601-609.

〈부록〉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요인명	번호()	문항내용
수줍음 행동	1(146)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어색해 한다
	2(128)	낯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 한다
	3(136)	자기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
	4(153)	소극적이다
	5(149)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한다
	6(150)	사람들 앞에 서면 당황한다
	7(124)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린다
공격성 행동	8(25)	고함을 지른다
	9(18)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낸다
	10(19)	말다툼을 한다
	11(10)	친구나 형제를 시기한다
	12(23)	말을 잘 듣지 않는다
	13(5)	잘 흥분한다
	14(31)	목소리를 크게 해서 이야기 한다
	15(2)	말썽을 부린다
	16(29)	기분이나 감정이 자주 변한다
	17(76)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잔소리 한다
18(74)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과잉행동	19(49)	산만하게 행동한다
	20(48)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21(47)	한가지 일에 오래 집중하지 못한다
	22(62)	일을 시작해도 끝맺음을 잘 못한다
	23(52)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24(6)	안절부절하고 항상 왔다 갔다 한다
	25(17)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위축행동	26(54)	행동이 서투르고 어색하다
	27(90)	묻는 말에 항상 늦게 대답한다
	28(85)	동작이 느리다
	29(50)	자주 공상에 빠진다
	30(93)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
	31(103)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불안행동	32(112)	걱정을 많이 한다
	33(115)	지나치게 피곤해 한다
	34(123)	어떤 것에 집착하여 그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
	35(68)	어떤 행동(다리떨기, 머리만지기, 손씻기...)을 반복한다
	36(142)	무서워서 혼자 있지 못한다
	37(71)	평소보다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적게 먹는다
	38(88)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미성숙 행동	39(58)	생때를 쓴다
	40(59)	징징대거나 칭얼거린다
	41(102)	뿌루퉁하게 있다
	42(117)	잘 토라진다

* ()안의 번호는 질문지 번호임